

## 2018년도 하반기 동호회 행사 일자 확정

낙시대회 10월 5일    등산대회 10월 31일  
바둑대회 11월 7일    송년모임 12월 13일

금년도 하반기 동호회 행사가 10월 낙시대회를 시작으로 12월 까지 열린다.



낙시대회는 10월 5일(금) 오전 6시에 열리며, 장소는 하루 전에 참가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등산대회는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종점에서 출발해 솔밭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까지의 북한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린다. (수유역에서 1번 마을버스 이용, 아카데미하우스 종점 하차)



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는 11월 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A, B 조로 나뉘어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골프대회는 골프장 예약이 완료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사우회와 MBC 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송년모임은 12월 13일(목) 저녁 6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가질 계획이다.

사우회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올 상반기 행사부터 이미 안내엽서 발송을 생략했으며, 식사와 차량 준비 등을 위해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사전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각 동호회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원들께서는 전화 02-722-7316번이나 02-789-3820번으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김상균(보도)회원 취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김상균(보도)회원이 취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0일 방문진 차기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16일 열린 방문진의 첫 회의에서 김 회원이 이사장으로 호선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도국장, 기획이사를 거쳐 마산MBC 사

장과 광주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보궐 이사가 된 뒤 3월부터 이사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선임으로 연임이 됐다. 김 이사장은 “지금 MBC가 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진으로서도 MBC의 위기 극복,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사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다.

## MBC사우회 차기 회장 선출 공고

현 MBC사우회 회장 임기가 2019년 2월 말로 만료됩니다. 회장 선출을 규정한 사우회 정관 11조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장 후보자 추천: 부회장 및 이사  
- 각 부문 부회장과 이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후보자를 2018년 11월 10일까지 사무처에 추천함.
2. 회장단 회의 개최: 2018년 11월 중  
-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해 이

사회에 부의함.

3. 이사회 개최: 2019년 1월 중  
- 차기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 추천함.
4. 정기총회 개최: 2019년 2월 27일(수) 예정  
- 차기 회장 선출, 신임 회장 취임  
\* 각 부문의 부회장과 이사들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0.  
MBC사우회 회장 이연현



## 여행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게 해서 좋다.



박민정(ANN)

〈프라하, 비엔나, 뮌헨, 린츠,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베르히테스가덴, 자그레브, 폴라, 류블라나, 인스브르크, 뮌헨, 밤베르크,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32일 동안 동유럽여행을 하며 들른 도시다. 6개월 전부터 비행기, 유레일패스, 호텔, 에어비앤비, 콘서트까지 기획하고 예약하는 것은 모두 남편 고장석씨 몫. 남편의 고회기념 여행. 30살 청년이 1년간 독일연수하며 혼자 다닌 유럽여행을, 언젠가 꼭 함께 하자고 한 약속을 70노년이 돼서 지켰다. 기내용 여행가방과 배낭만 메고 기차로 하는 유럽 자유여행. 듣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친구들과 유럽 단체여행을 갔을 때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서는 아쉬움이 컸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남편과 편안하게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못 가본 동유럽 도시를 위주로 ‘프라하 도착, 프라하 출발’로 계획했다. ‘꽃보다 할배’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현지 체험을 많이 하자고 했다.

드디어 요즘 ‘핫’하다는 프라하 도착.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더웠다. 지금의 프라하의 기반을 닦은 대단한 카를4세, 프라하城과 카를교의 야경, 카프카의 흔적을 만난 황금 소로, 비셰흐라드에서 드보르작 묘소 참배, 아마데우스 촬영을 한 성당에서의 음악회. 자신의 교향곡을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에게 바치고 싶었던 애연가 드보르작. 눈 감으면 비엔나까지 기차로 이동하기 위해 꼼꼼하게 써놓은 기차 시간표와 드보르작의 음악이 오버랩 된다.

프라하의 마지막 날, 민속식당에서 여러 나라 관광객이 모여 각 나라 민속음악을-우린 아리랑-소개하며 춤추며 즐기던 그 시간들. 쉴 슈테판 대성당 바로 뒤편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보낸 비엔나의 닷새,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쾰른 뮌헨 디너콘서트. 〈EXCLUSIVELY FOR Park Min Jung〉. 이 팸플릿이 내겐 이번 여행의 백미였다. 모차르트박물관, SiSi박물관, 보물전시관을 보며 한때 서구를 지배한 오스트리아를 실감했다.

황금조각상으로 화려한 뮌헨수도원, 초록빛 물결이 넘실대는 다

뉴브강 줄기를 따라 포도밭과 그림 같은 집들을 감상한 짧은 다뉴브크루즈, 한 때 소금으로 富를 이룬 도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와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미라벨궁전과 헬브룬궁전, 소금광산, 휴일 미라벨궁전 주변 노점에서 관광객들이 햄, 치즈, 올리브를 안주 삼아 포도주잔을 부딪친다.

산세와 맞물려 시시각각 다른 모습의 산을 투영하는 거대한 호수 할슈타트.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풍경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진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주변 집들은 어찌 그리 예쁘던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게 만든다.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를 3:0으로 이긴 흥분이 아직도 거리에 묻어있는 자그레브. 월드컵 막바지에 들렀으면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꼈을 텐데...알프스의 한 봉우리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하고 산책한 인스브르크.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푸른 색들-하늘, 잔디, 숲, 공기. 기차 타고 다른 나라를 쉽게 갈 수 있는 유럽이 많이 부러웠다.

바닷가 작은 도시 폴라의 원형경

기장에서 펼쳐진 검투사 공연도 여행의 맛을 더해줬고, 가는 곳마다 장을 보며 ‘햄치즈샌드위치’를 해 먹던 즐거움도 빠뜨릴 수 없는 여행의 추억이다.

독일 체리가 어찌나 맛있던지 이번 여행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 때까지 사먹었다. 32일간의 숙소, 기차, 버스, 음악회 등을 예약한 A4 용지가 거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차 좌석에 약용지를 버리면서 우리의 여행도 막을 내렸다.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서로에게 고마웠다.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 마디. “여행 내내 구글 내비 보느라 좀비처럼 휴대폰 들고 다니고, 예약 확인하고, 메일 후기 답글 보내고,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맛있는 메뉴 주문도 잘 해 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여보 사랑해요~!!”

## 뜻밖의 중환자실 경험



장명호(편제)

죽기 전에 한 번쯤 거쳐간다는 중환자실을 다녀왔습니다.

3주 전, 기분 좋은 후배들과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곁들인 와인이 좀 과했던지, 며칠 전부터 가슴통증이 있었는데 이날은 자면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병원 응급실을 아침 일찍 혼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아 보호자 호출하여 관상동맥 조형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24시간 관찰을

해야 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만 느껴졌던 병원 중환자실 첫 인상은 ‘활기찬 야시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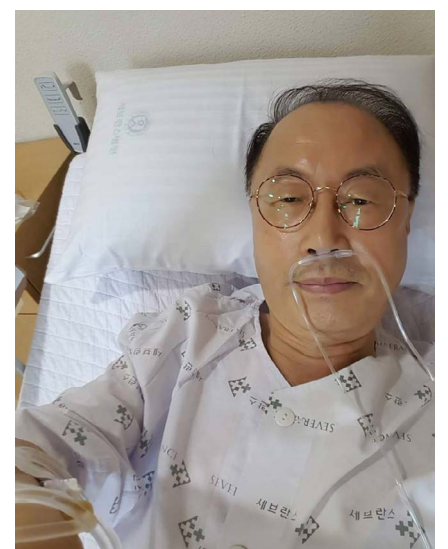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환자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안경이 참 귀엽네요. 어디서 샀어요? 동그란 테가 참 이뻐요” 첫 대면 인사치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팔과 다리, 코 등에 각종 의료기구를 장착하고, 20분마다 혈압 재고, 서너 차례 피 뽑고, 수시로 심전도 체크하고, 잠시도 눈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근무자는 3교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일개 분대가 동시에 빠져 나가

고 새 분대가 들어오면서 새로 환자상태 체크하고 시끌벅적한 것이 여기저기 삶의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마치 〈단테의 신곡〉을 나들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옥에서 시작하여 연옥을 지나, 잠시 지상의 낙원을 거쳐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과 공간여행을 연상케 합니다. 24시간 중환자실 여행을 하면서 바로 퇴원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나같이 일반 병실로 옮기는 사람은 연옥을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헬스클럽에서 뛰고, 담배도 피지 않고, 기름진 음식 안 좋아하고, 큰 죄지는 것 하나 없는데도



심혈관이 막힌다니... 인체人體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심혈관에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

■ 구순 ■

서규석(고문)10/15 조태윤(관리)11/17

■ 팔순 ■

이한우(미주)10/05    맹계하(미주)10/11    차종식(기술)10/19  
서기석(관리)10/24    이우현(부산)10/27    정경수(ANN)11/22

■ 고회 ■

주용국(기술)10/03    문정철(기술)10/18    윤건호(편제)10/19  
박병선(편제)10/29    이만규(관리)11/19    권오형(업무)11/20

■ 회갑 ■

송일준(편제)10/14    홍성권(기술)10/15    김기배(기술)10/15  
송재우(보도)10/16    최영달(편제)10/17    이학귀(관리)10/21  
김인수(관리)10/21    오순심(편제)10/24    김애림(ANN)11/06  
김홍수(관리)11/17    이창원(관리)11/18

■ 결혼 ■

이현우(이사)장녀08/11 이상욱(관리)장남09/15 구본홍(보도)장남09/28

■ 부음 ■

김호준(보도)장인상07/11    이성수(관리), 임경수(편제)장모상07/12  
박경삼(편제)모친상07/16    오광택(보도)장인상07/21  
한귀현(이사)모친상07/22    변종민(기술)부친상07/24  
김철진(편제)부친상07/25    최순근(편제)모친상08/15  
송승종(편제)모친상08/16    이상근(기술)부친상08/16  
박종(편제)장인상08/26    남궁미(ANN)시모상08/26  
김성규(관리)모친상08/28    강지현(관리)부친상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정찬형(편제) 010-5236-8901 강남구 밤고개로 26길 43  
최윤성(관리) 010-9219-9119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324

■ 연회비 ■

7월 : 박병선('16~'19) 박준하('16~'18) 엄기영('12~'18)  
이의열('15~'17) 이준호('17~'18) 황선길('15~'18, 80세 납부 끝)  
8월 : 박영달('10~'18, 80세 납부 끝) 윤영란('15~'16) 이상근('20~'22)  
이훈상('16~'18, 80세 납부 끝) 조춘희('18)  
9월 : 전종철('07~'18)

■ 평생회비 ■

정찬형(편제)08/03 최윤성(관리)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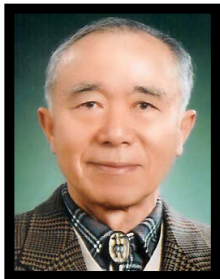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 박근숙 강남구 논현로 213  
편제 : 심우승 010-9823-6866  
주옥연 강남구 논현로 213  
보도 : 고대석 영등포구 양평로 24길 9  
문철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  
오태돈 경기 과천시 찬우물로 26-1  
유무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일로 54  
기술 : 문정철 강서구 마곡중앙1로 71  
오승룡 경기 광명시 양지로 16  
이재훈 양천구 목동서로 400  
업무 : 권순복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관리 : 권상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8길 71  
김애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티재로 285번길  
박기병 은평구 통일로 590  
오원섭 양천구 신목로 5길 9  
윤준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03  
홍용선 동작구 상도로 34길 35  
대전 : 조춘희 서초구 바우피로 53  
전주 : 권황택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안길 2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영수**  
(우중.편제)  
7월 10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80세. 1969년 TBC에서 MBC로 옮겨와 쇼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토요일 토요일 밤에>는 500회 이상 연출한 기록을 갖고 있다.



**변현규(편제)**  
7월 24일 폐렴으로 별세. 향년 84세. 1964년 부산MBC에서 서울로 옮겨 라디오 국장, 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1981년~1985년 마산MBC 사장을 역임했다.



**손영조(대구)**  
8월 4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81세. 1975년 1월 대구MBC에 입사해 총무부에서 근무하다 1995년 12월 퇴직했다.



**양희성(업무)**  
8월 16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66세. 1977년 업무국에 입사해 광고업무를 했다. 계열사 관리부를 거쳐 감사실에 근무하다 2010년 9월 정년퇴직했다.



**백성원(관리)**  
7월 19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69세. 1980년 12월 비상계획부에 입사해 경비업무에 종사하다 1998년 3월 차장으로 명예 퇴직했다.



**고종남(관리)**  
6월 30일 췌장암으로 별세. 향년 68세.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 2004년 10월 MBC에 입사해 안전관리부장을 지내다 2008년 6월 퇴직했다.



**민상근(편제)**  
8월 14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84세. 1965년 입사해 라디오제작부 문예반장으로 1974년 퇴직했다. 퇴직 후 EBS 본부장과 노원유선방송 제작이사를 지냈다.





## 회/원/동/정



## 정찬형(편제)

YTN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9월 YTN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정 회장은 2015년부터 tbs교통방송 대표를 맡고 있다.



## 윤영무(보도)

치킨을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윤영무의 치킨 경제학' 1인 방송을 시작했다. 네이버TV의 '윤영무 경제학'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최정숙(편제)

CTS기독교TV '제2회 성경 온라인 필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 백두산 여행 티켓을 받아 금명간에 백두산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 김영일(보도)

7월 초 '부산시 근대5종경기연맹' 회장에 선임됐다. 근대 5종 경기는 사격, 펜

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등 5개 종목을 겨뤄 승부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 종목이다.



## 송일준(편제, 광주MBC 사장)

페이스북에 '광주 리포트'를 연재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일본인 한류 팬들에게 광주, 전남과 광주MBC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韓流中心 光の州'를 따로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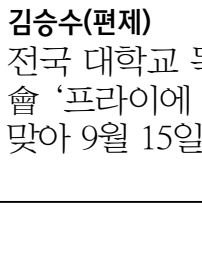
## 장영배(보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단지 노인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1988년 MBC사원아파트로 조성돼 421가구가 입주해 있다.



## 유기철(보도)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유 회장은 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기 방문진 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다.



## 김승수(편제)

전국 대학교 독어독문학과 劇會 '프라이에 뷔네' 50주년을 맞아 9월 15일 서울 남산에 있

## 동/호/회/소/식

## 청죽회(회장 이종구)

시설분야 사우회원 모임인 청죽회는 100년만의 폭염이라는 더위 속에서 지난 8월 2일 6시반 종로삼계탕 식당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안부 인사를 교환하며 담소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 선임된 이종구 회장과 전종철 임시총무는 중도 사퇴한 전임 회장단으로 부터 인수한 제반 자료(수입과 지출 등 회비, 운영관련)를 검토한 결과 특기할 문제가 없었음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는 독일문화원에서 연극제, 세미나 등 행사를 하는데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 장덕수(편제)

운악산 근처에서 당도가 높기로 이름난 '비가림포도'밭을 1,000여평 가꾸고 있는데 작년에 급습한 냉해를 입어 많은 포도나무가 죽은 탓에 금년 수확은 예년의 20%에 불과하다고. 방송보다 어려운 게 농사일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



## 고석만(편제)

'한겨레 신문에 회고록 '길을 찾아서'를 연재 중이다. 과거에 '조기종영'해야 했던 드라마의 숨은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다.



## 곽성문(보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전공과목인 역사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죽서기년(竹書紀年)'을 번역 중이다. '죽서기년'은 '사기(史記)'와 더불어 중요한 고대 중국 초기 역사서다.

## (백내장수술 후의 체험) 후발(성)백내장



## 김희을(기술)

저는 사우회의 백내장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아 2016년 8월 16~17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하는 대로 시력을 되찾았고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우회보 제37호에 '눈이 밝아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시력에 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빠졌고 2018년에 접

어들면서는 눈에 무엇이 가려지는 듯해 운전할 때도 불편을 느끼게 됐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글자의 초점이 맞지 않아 오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시간만 보낼 수 없어 2018년 4월 13일 수술을 받았던 GS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후발(성)백내장'으로 진단되어 당일 레이저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수술을 하면 혼탁했던 수정체가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바뀌므로써 수술 후에는 산뜻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상처의 회복과정에서 시력의 변화를 수술 후 수 주간 겪게 된 후에는 시력이 수술 직후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 중 한가지로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일명 후낭)가 혼탁해지면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후발(성)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레이저 수술 후, 처음 백내장 수술을 받고 느꼈던 것 이상으로 눈이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무엇이 가리는 느낌도 없어졌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글자의 초점이 맞지 않는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수술하느라 헛고생했다'며 한탄하거나 방치하지 말

고 바로 안과 의사를 만나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처럼 '후발(성)백내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백내장 수술 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안과 의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MBC 불교연구회” 명산대찰 순례법회



유 희 근(보도)

1996년 7월. 몇몇 사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 로비에 공고문을 냈다. “불교회를 창립합니다. 뜻있는 사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경기도 광릉 봉선사에서 20명이 하룻밤을 묵으며 창립법회를 가졌다. 단체 이름을 “MBC 불교연구회”로 정하고 매월 한 번씩 법회를 갖기로 했다. 마침 회사 건너편에 조계종에서 주관하는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2시에 여의도 포교원에서 법회를 갖고, 법회가 끝나면 회원들끼리 점심을 함께 했다. 불교연구회는 회원들에게 불교의식에 알맞은 법복을 지급했고, 불교경전을 편찬해서 보급했다. 가족들과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1박2일간 “전국 명산대찰 순례법회”를 다녔다.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새벽예불에도 참여했다. 갈수록 회원 수가 늘어나 100명을 넘게 됐다. 지역MBC 불교회원들도 전국 명산대찰 순례법회에 동참했다. 회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했던 일에 보람을 느낀다. 사진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금동미륵대불”과 “국보 팔상전”을 배경으로 찍은 회원들의 모습이다.



#### 여기는 평양입니다.



김 민 호(보도)

오랜만의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 본 33년 전의 흑백사진. 평양 고려호텔 앞에서 북한 여대생과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힐끗 카메라를 보는 남성은 북한안내원. 1985년 9월 20~23일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예술단 공연이 있었다. 이산가족 30명, 예술단 30명, 지원단 20명 그리고 MBC기자 2명을 포함한 30명의 취재단이 평양에 갔다. 취재진 가운데 한 신문사 사진기자가 북한 여대생과 인터뷰하는 내 모습을 촬영해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당시 기자 4년 차였던 나는 기자 완장을 착용하고 오른편 어깨에 카메라, 왼손에 마이크, 허리에 조명벨트를 차고 이산가족 상봉 현장과 예술단 공연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인터뷰를 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85년 이산가족 상봉 영상 중에는 아마도 내가 촬영한 것이 꽤 많을 것이다. 33년 전 인터뷰했던 이 여대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는 잘 사용하고 있을까?



#### 간판 쇼 프로그램 AD 시절



심 우 승(편제)

흑백TV 시절, TV쇼 프로그램의 쌍벽은 MBC의 ‘토요일 토요일 밤에’(전우중 연출)와 TBC의 ‘쫄쫄쫄’(조용호 연출)였다. 두 프로그램의 경쟁은 두 방송사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사에 뜨거웠다. 출연 가수, 무대 구성, 카메라 워킹 등 어느 것 하나 상대 프로그램에 뒤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연출, 조연출은 물론 기술, 카메라, 미술, 조명에 이르기 까지 모든 스태프가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인력만큼은 그 분야에서 에이스들로 배치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쇼 프로에 미친 사람’으로 소문 난 전우중 선배의 AD를 맡은 나로서는 하루하루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녹화가 있는 금요일이면 아침부터 녹음실로, 악단실로, 미술실로, 출연자 대기실로, 스튜디오로 뛰어다니는 강행군을 하느라 진짜 소변 볼 틈도 없었고, 녹화가 끝난 후에도 뒤처리를 하다 보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 통금시간에 걸려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곤 했다. 1년 좀 넘게 힘들지만 나름 재미있었던 쇼 프로그램 AD시절은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이다.



(왼쪽부터) 원춘재, 양경운(CAM), 나, 안계홍(TD), 차종식(CAM), 전우중PD



## 인터뷰

##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찾은 보람

젊은 날의 일터인 MBC를 떠나 이른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우회원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각양각색이다. 그 중의 한 사람,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2의 삶'을 살면서도 의미와 보람을 만끽하고 있는 전우성(기술)회원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만났다.



직함이 '오송행복교육공동체 대표'인데 '행복교육공동체'라는게 뭔가요?

네, 학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마을공동체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행복교육공동체 사업 목표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님으로서 MBC에서는 주로 기술부문에서 일하셨잖아요?

1981년에 MBC에 입사해서 2006년까지 주로 기술연구소(전 기술개발실)에서 R&D를 오래 했습니다. 그 후 2006년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2008년에 안동MBC 사장을 했구요, MBC를 나와서는 2011년부터 3년간 우송대학교에서 방송미디어학을 강의했죠.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원래 책을 많이 좋아했었구요,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역에도 관심이 많아서 20년 넘게 주역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도 있었나요?

직장생활을 마치고 나서 2년 동



안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저런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서전 쓰기 과정을 5개월 들은 뒤에 실제로 자서전을 쓰고 있구요, '어린이 그림책 지도'라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6개월간 들으면서 '내가 청소년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전공이 교육학이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이곳 오송읍으로 옮겨와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북 토크'이라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뜻이 통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죠.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지역에 대형 코인세탁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아이 두 명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놀 장소가 마땅찮으니까 거기서 놀다가 잠든 거죠. 아이들의 부모뿐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충격을 받아서 '아, 이래선 안되겠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고, 인식을 같이 하는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십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공간 확보, 자금 조달 방안, 운용 방법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난 3월에 '오송행복교육공동체'를 공식 발족한 겁니다. 주위 분들의 권유를 받아 부족한 제가 대표를 맡게 됐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란 게 어차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마을사업, 동아리 활동, 마을잔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을사업에는 첫째 '마을 속 작은 텃밭 도시농부'라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청자에게 텃밭 용 화분을 분양

해주고 화분에 채소를 기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른 채소는 반드시 모두가 나눠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별 헤는 밤' 프로그램으로, 별을 관측하는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우주를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꿈을 따라가는 마을지도' 프로그램인데, 마을의 체험처를 방문하고 조사 후에 지도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빠와 함께 춤을'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여덟 가정(16~20명)을 초청해서 자녀와의 놀이를 통한 아빠들의 관계회복, 아빠들끼리의 공동체 형성을 도모합니다. 다섯째로 '참새방앗간' 프로그램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하려면 지역민들의 능력만으로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청주교육청에서 계획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도 받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게 됐고요, 특히 청주시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각 마을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청주행복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흐뭇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나요?

제가 고등학생들 동아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어젠더 설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TV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 안목도 길러주고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든 찍어서 편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자세



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안목이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게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밝을 거라는 징조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의 서로 다른 마을공동체들이 연대를 하면 거버넌스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시청이나 교육청과 연계를 이루면 시너지효과도 생기구요. 그렇게 모아진 힘으로 새로운 마을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인프라도 구축하구요. 이제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럴 때 '살이 곧 배움터'가 되는 마을생활이 활성화 된다면, 즉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편하게 놀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고 교육적 효과도 생성되는 거죠. 마을공동체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정말 의욕이 넘쳐 보이는군요.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맘껏 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구요.

우리 사우회원들께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생활로 살고 싶다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대답: 최 천(편집위원)



## 스무 번째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다.



하 동 군(보도)

2018년 7월 28일 오후 2시 반, 36,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지리산 천왕봉 오르기 일행 열 명은 여름철 피서를 겸

한 산행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스무 번째 천왕봉에 오르는 필자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동반산행이기도 하다. 오후 3시부터 소나기를 만났다. 폭염에 지친 육신을 식힐 겸 일행은 빗방울을 흠뻑 맞으며 즐겁게 산을 올랐다. 5시가 채 안 돼 로터리대피소에 도착했다.

대피소 일대는 20도 전후의 기온에 바람까지 시원하게 불어 가을 기분이 들 정도다. 일행이 가져온 35년산 침주를 반주로 저녁식사를 하고 일찌감치 잠에 빠져든다. 자정 무렵 화장실을 가면서 바라본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에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 하늘이 말 그대로 은하수다.

29일 새벽 4시 반, 하늘은 맑고 달빛은 청량하고 명징하다. 헤드램프 불길에 의지해 선, 후배 친구들과 화이팅을 서로 나누고 법계사 일주문 앞을 통과, 천왕봉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2014년 나이 60을 고비로 뒤늦게 시작한 지리산 오르기지만 4년간 17번이나 천왕봉을 집중적으로 올랐으니 내가 지리산에 푹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 이전에 두 차례 올랐던 횡수까지 합치면 통산 19차례. 그동안 지리산 드나들기를 따져보면, 19차례의 천왕봉 등반과 3차례 지리산 종주, 연말연시 천왕봉 일출을 보기위해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전후하는 맹추위 속에 무릎까지 빠지는

한겨울 눈발 등산 4차례, 백무동, 한신, 뱀사골, 칠선계곡, 대원사, 거림계곡, 피아골, 의신, 단청, 고운동, 청학동 등 크고 작은 지리산 계곡과 주변 둘레길과 대피소, 등산길을 드나들기는 이미 수십 차례나 된다.

로터리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 오르는 길은 지리산 전체 등산코스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다. 거리는 2km에 불과하지만 칠선계곡 비법정탐방로 다음으로 험하다. 그러나 그동안 수십 차례 드나들어서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생긴 바위가 있고 어느 쉼터에 다람쥐가 자주 나타나는 지까지 알고 있다.

호흡 템포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발걸음을 리듬감 있게 내딛는다.



그렇게 오르기를 한 시간 반 남짓, 그런데, 천왕봉을 불과 200미터 앞둔 천왕샘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 쪽 무릎 상부 허벅다리 근육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억지로 다리를 굽혀 교대로 스트레칭을 해 본다. 그런데 간단치가 않다. 근육이 잔뜩 화를 내고 있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근육이 굳으면서 통증이 따라온다.

급한 기온 변화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도 있지만 갑상샘암 환자 출신인 나는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 편인데 이번 산행에서 불쑥 그 현상이 온 것이다.

몸에 한기가 오기 시작하고 손까지 시렵다. 호흡에 힘이 들거나 탈진해 지치는 게 아니라 특정부위 근육만이 잔뜩 화를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으니 참 난감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오르내렸던 길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게 되다니. 한편으로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통증이 허벅다리를 때린다. 뒤따르던 후배들에게 먼저 산을 오르라고 길을 비켜준다.

천왕봉에 먼저 올라가 기다리던 최 도사 일행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내 배낭을 빼앗아 올라간다. 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던 후배 동료들이 천왕봉 마지막 나무계단에서 기다리며 겨우 발걸음을 떼고 올라오는 나를 환호와 박수로 격려하며 스무 번째 등반을 축하해줬다. 순간 다리 근육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든다.

인간이란 참 간사하고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격려 박수를 받고 다리 근육이 풀리다니? 맘이 편안해지면서 몸도 풀리고 드디어 대망의 스무 번째 등반이라는 기록달성에 대한 성취감과 안도감, 보람과 기쁨이 천왕봉 정상석 곁에 서는 순간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가슴이 뿌듯하다. 힘차게 주먹을 앞으로 내밀어 본다. 그렇게 해서 스무 번째 천왕봉 등반을 성공했다. 64세의 나이에.

그러나 천왕봉 주변은 온통 운해 雲海다. 지나가는 운해의 빠른 바람소리와 귓볼을 스쳐 때리는 냉기가 차갑다.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천왕봉 정상석 곁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하산을 서둘렀다. 허벅다리에 근육통이 온 상태에서 체온이 낮아져 손까지 시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형편이 아니었다.

대업을 성취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제 당분간은 천왕봉 오르기는



생각도 안됐다고 하면서 내려왔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았다. 오르기 올랐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은 역시 지리산이다. 등반하는 후배들에게 늘 '산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산을 좀 탄다고 건방진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해 놓고 내가 잠시 건방진 생각을 한 것을 지리산이 단호하게 응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천왕봉이나 스무 번째 천왕봉이나 지리산은 늘 초심을 요구한다. 그 초심을 다시 새기고 새겨서 더욱 정진할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천왕봉은 늘 겸손함과 정직함과 준비성을 요구한다. 순간의 방심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천왕봉에 올랐을 때 운무에 가려 보지 못한 천지사방이 못내 아쉬워 그 호연지기를 만나러 열일곱 차례나 더 올랐는데 이젠 그만 올라야겠다고 오른 스무 번째 등반에 천지사방을 운무로 가려 보여주지 않은 천왕봉의 심술은 나에게 '스물한 번째 등반을 계속하라는 뜻인지 이젠 그만 와도 좋다'는 뜻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등반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하늘이 코발트빛 캔버스에 몽계구름으로 화사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청록의 산들이 겹겹이 선을 아스라히 그어낸다. 참 아름다운 날씨다. 법계사 앞 등산로에서 뒤돌아서서 천왕봉을 향해 합장 인사를 올린다.

'일행 모두가 무사히 산행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늘로 돌아간 ‘카리스마 PD’ 전우중



유수열(편집)

카리스마 넘치는 전우중 선배님. 힘겨웠던 육신의 고통을 벗고 먼 나라로 떠나간 선배님을 먹먹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선배님께서 7월 10일 오전, 사모님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묵묵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7년 10월, 전 선배님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폐암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의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 마포에서 예능PD 선배들의 신년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전 선배님은,



“나는 폐암이다. 마지막으로 같이 일하던 예능PD들이 보고 싶어 나왔다. 3개월 더 산다고 한다. 주변사람들 고생 안시키려고 한다. 이제 나의 길을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사능치료는 안한다. 집에서 혼자 지내겠다. 그리고 의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드린다’는 선배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겐 오히려 감동이었습니다. 신년회모임에서 선배님은 목소리도 크고, 지난 얘기를 할 때는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전우중PD, 전설적인 영상제일주의 쇼 연출자. 새로운 연출, 새로운 영상미를 철두철미 추구했던 프로. 보직이나 승진에 전혀 관심 없는 PD. 담배를 피우는 품이나, 걸어가는 품이나, 연출하는 품에서 카리스마가 넘쳤던 사람. 과감한 기획과 치밀한 구성, 혹독하게 연습하고 만들어 낸 <김추자 특별 쇼>가 방송되던 1974년 그 시간, 거리에는 차량과 인적이 그치고 다방마다 TV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해 한국방송대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쇼프로그램이 방송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럭비선수를 취미로, 음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전 선배님은 그냥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1964년 TBC동양방송 총무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직원 전우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쇼프로그램 음악소리의 흡인력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작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나 음악의 ‘음’자도 모르면서 쇼프로를 할 수는 없는 일. 그는 피아노학원을 찾아 어린이 피아노교본 바이엘부터 배웁니다. 퇴근 후에는 방송사 피아노에서 밤새워 연습을 했습니다. 일 년 후, 악보를 읽게 되고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내친 김에 기타 연주도 배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작사, 작곡도 배웁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작곡과




편곡을 계속해 많은 곡들을 이은 하, 김추자, 김세환 등 가수들에게 썼습니다. 지금은 아드님이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 받아 ‘YG엔터’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선배의 음악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전우중 선배님.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님 모습이 많이 그리웁니다.

문득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이 생각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전우중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 MBC 문화방송 사우회 회원을 위한 세란병원 건강검진 이벤트

## 정밀·암 종합 건강검진

특 가  
EVENT  
30  
만원

**MR / CT**  
특수초음파  
대장내시경  
(택2)


**뇌MRI 뇌MRA** <MR 검사는 1부위 선택 가능>  
**뇌CT | 저선량폐 CT | 요추 CT | 경추CT |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수면내시경**

+

**공통검사**

여자: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반초음파  
 남자: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위내시경(수면비포함), 부인과검사(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심전도검사, 체성분검사, 안과검사,  
 청력검사, 흉부X선검사, 기본진료, 당뇨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A형간염검사, B형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고지혈증검사, 일반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등 80여가지 혈액검사

※ 검진 시 용종제거나 조직검사가 추가될 경우 개인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란병원**  
SERAN GENERAL HOSPITAL

예약 및 문의 **1577.0196**

### 세/란/병/원/건/강/검/진/센/터

진료, 검사, 수술, 병동, 회복, 애프터케어까지 모든 토털케어를  
 각 분야 전문의료부터 일반 검진센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립니다.

